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 용서의 (불)가능성에 대한 해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소 연*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용서와 해원(解冤)의 (불)가능성 |
| 2. 갈등(agon)의 협상과 종결의 부재 | 5. 나가며 |
| 3. '대리보충'으로서의 고향 글쓰기 | |

국문초록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제주 4·3사건이라는, 언어로 온전하게 재현하기 힘든 비통한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수많은 신화와 설화들을 소환한다. 이청준은 신화의 구조를 인식의 지평으로 삼아 일차원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현실을 형상화하려고 시도했다. 『신화를 삼킨 섬』에는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온갖 인간사들이 등장한다.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협상하려 한다. 그 가운데

* 서강대학교

대표적인 사례가 용서와 해원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소설이 어떠한 답변을 내리는가에 관한 문제다. 독자는 『신화를 삼킨 섬』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신화를 삼킨 섬』은 기대 층위에서는 종결에 도달했으나 질문 층위에서는 종결에 이르지 못한 서사, 즉 종결의 부재를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내내 지속되었던 갈등 가운데 결국 해결된 것은 없으며 애도는 영원히 지연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끝난다. 이 가운데 소설은 심연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현실에 자신을 맞세움으로써 열린 결말로 향하는 노정에 있는 삶을 형상화하는 기호가 된다.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독해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용서와 치유라는 표면적 주제를 넘어서 4·3을 비롯한 역사의 비극 속에서 짓밟혀온 민중과 지역공동체의 참상을 기억 한 가운데 각인시키는 일을 동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위령굿은 신화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무대로서, 용서와 해원의 사건에 대한 재현으로서, 그리고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청준에게 있어 ‘소설질’ 즉 소설 쓰기는 모순되는 두 개념이 만들어내는 역설과 열린 결말을 통해 실재계적 사건인 ‘트라우마’를 역사라는 상징계에 기입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설 속의 위령굿과 작가의 소설 쓰기는 역시 현실에 더해져서 용서와 애도의 불가능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현실의 결핍을 드러내는 대리보충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신화적 리얼리즘, 갈등, 종결, 트라우마, 용서, 해원, 애도, 굿, 협상, 글쓰기, 대리보충, 해체

1. 들어가며

장편소설 『신화를 삼킨 섬』(2003)¹⁾은 4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져 있는 이청준의 창작 기간 가운데서 후기에 쓰인 작품 군에 속한다.²⁾ 이청준은 이 시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신화’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작품에 활용했다. 『신화를 삼킨 섬』과 미완성 유고작 『신화의 시대』(2008)처럼 표제에 ‘신화’를 내건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2000), 『축제』(1996), 『비화밀교』(1985), 『용소고』(1990)와 같은 중·단편들에도 신화적 상상력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청준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무속 혹은 신화”야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어떤 심성, 즉 영적인 차원과 녀의 문제에 대한 천착”³⁾을 담고 있는 신념 체계라고 밝혔다. 그의 작품 속에서 신화는 세계와 인간에 관한 관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자 재료로 사용된다. 이청준의 경우, 신화에 대한 경도는 곧바로 현실로부터 유리된 초월적인 세계 혹은 집단 무의식을 향한 이끌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청준은 “우리 현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원리”⁴⁾로서 신화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의 소설에서 신화와 전통적인 의식들(무속의 굿이나 장례 절차)은 현실을 더욱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미학적 ‘장치’로서 사용되는

1)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앞으로 소설을 인용할 때는 본문 옆에 쪽수만 표기한다.

2) 이윤옥은 2002년을 기점으로 이청준의 작품세계가 무속에 근간을 둔 ‘신화’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이청준의 소설을 크게 둘로 나누는 데 첫 시기가 탐구의 대상이 역사와 정신에 머무르는 특징을 보인다면 두 번째 시기는 신화와 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윤옥,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428-429쪽.

3) 『대한매일』 2003년 8월 8일자, 56면.

4) 앞의 글, 56면.

측면이 크다.⁵⁾

이청준에게서 ‘신화’를 향한 관심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치열한 실천 의식을 동반하곤 했다. 신화적 상상력의 양가성이 드러난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화를 삼킨 섬』이다. 이 소설 속에서 인간 정신과 역사의 실체를 파고드는 작가의 탐색은 한층 급진적인 단계로 심화·발전된다. 이 소설은 제주 4·3사건 뿐 아니라 광주민주화항쟁 등 민감한 정치적인 맥락들을 곳곳에 담고 있다. 이 소설에는 12·12사건을 통해 집권한 군부 정권의 폭압적 행태와 제주도, 소록도 등 특정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인간적·반인권적 폭력 사태에 대한 고발, 오월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史實)과 이를 변형한 각종 설화와 신화들을 여러 층위에 중첩시킴으로써 사회 현실을 전면에 다룬 참여 소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은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되 단순한 거울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닫힌 현실을 넘어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열린 텍스트의 경지를 지향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소설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텍스트성(textuality)을 획득하는 과정에 ‘신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청준의 소설은 ‘신화’와 ‘리얼리티’라는, 언뜻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상태가 현상의 이면에서는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모순적

5) 이청준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과 그 양상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청준의 후기 소설 가운데서도 특히 『신화를 삼킨 섬』과 신화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 및 평문들은 다음과 같다.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 - 최인훈,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 <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오생근, 「이청준의 마지막 소설들과 신화」,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2011년 가을호; 이경욱, 문학텍스트에 대한 문학인류학적 해석: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론, 『비평문학』 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등.

상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⁶⁾ 이청준의 소설에서 신화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어려운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필요한 미학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현실에 공동체의 역사라는 맥락을 부여하기 위한 인식론적 지평으로서 사용된다. 신화와 무속신앙, 그리고 굿이라는 의식(儀式)은 현실 너머에 망자(亡者)와 신들이 사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동시에 이승의 삶에 유한성과 경계를 부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준다. 헤겔의 변증법이 의미하는 ‘부정의 부정’과도 통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재현 방식을 명명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신화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청준의 후기 소설에서 이러한 ‘신화적 리얼리즘’의 기법은 타성화된 재현의 관습을 뛰어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고려조의 역사에 연원을 둔 김통정, 김방경 설화, 집단무의식에 근거를 두고 반복해서 변주되는 아기장수 설화, 무속의 굿과 같은 전통적인 애도 의식 등의 신화소(神話素)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연들 즉 이민자 2세를 중심으로 한 이산(離散) 테마, 혈연의 비밀에 얽힌 자기 정체성 찾기 모티프, 국가 혹은 관(官)과 개인 간의 갈등, 섬을 탈출하려고 하는 인물의 애절한 사투 등 다양한 미시 서사들을 겹쳐 놓는다. 이들 미시서사들은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는 갈등(agon) 관계를 이루면서 중층적으로 얽혀 전체 구조를 만들

6)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두 가지 기법 혹은 현상이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면서 한데 겹쳐 있다는 사상 자체는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낯선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미의 거장들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이 즐겨 사용했던 ‘마술적 리얼리즘’이다. 이들은 각종 신화와 설화의 자산들을 끌어와 남미의 민중들이 겪는 현실을 더욱 소설로 생생하게 구현하는 방편으로 삼아왔다. 본고에서 사용한 ‘신화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 역시 이들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마술적 리얼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신화적 리얼리즘에서는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신화가 오히려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어간다. 이러한 미시서사들은 갈등하는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협상하면서 종결(closure)을 향해 서사가 진행되어 가도록 기여하고 있다.

미시서사들과 신화소들이 갈등과 협상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하나의 텍스트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밝혀내는 과정은 『신화를 삼킨 섬』의 종결을 해체하는 작업과 자연스럽게 병치된다. 『신화를 삼킨 섬』의 종결부는 오랜 시간 지연되었던 해원 곳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망자들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감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완결은 소설에서 집요하게 추적되어 온 여러 갈등 요소들의 잠정적인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청준의 소설은 이러한 갈등들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해결처럼 보이는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본질적으로 용서와 화해란 결코 성취되지 않을 불가능성의 영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부각시키고 있다.⁷⁾ 이러한 종결과 화해

7) 이미란은 이청준 소설의 주제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잊기의 윤리학으로 귀결된다.”는 전제 하에 그의 소설 전반에 깔려 있는 창작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억과 이야기’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잊기’의 한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모순된 결론을 도출한다. ‘기억하기’와 ‘잊기’라는 상반된 행위를 동일한 선상에서 인식하는 주장은 필시 (필자도 앞에서 주장한 바 있는) 역설에 근거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는 이러한 ‘역설’을 뒷받침할만한 이론적 근거가 촘촘하게 펼쳐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윤리’라는 보편적인 준거에 텍스트를 끼워 맞추는 느낌마저 준다. 그가 “잊어주기의 관용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한 「지하실」(2005)은 용서의 미덕은커녕 지나간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애도 작업 없이 살아남은 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둘러 용서와 망각을 촉구하는 인간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 역시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이미란, 용서와 화해, 잊기의 윤리학 : 이청준의 창작론 연구(2)), 『현대소설연구』 5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74, 382쪽.) 이미란의 논문 외에도 『신화를 삼킨 섬』의 선행 연구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질문 층위의 답변을 연구자 스스로 내린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문학은 기억을 잊기 위해서 쓴다. 즉 망각되지 않은 것을 불러내어 화해를 이루게 하는 과정이다. 결국 국가권력의 교묘한 선동에 취해 집단학살의 사건을 경험한 제주 4·3을 다룬 소설 <신화를 삼킨 섬>은 상흔의 소재를 기억하고, 아픔을 치유하려는 의

의 불가능성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비참한 현실의 재현 불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은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상호간의 협상을 통한 표면적인 봉합에 이를지라도 궁극적인 해결은 기승

도를 갖는 서사가 된다.”라는 연남경의 설명 역시 이러한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02쪽.) 이러한 주장들은 정작 이청준의 소설은 끝까지 손쉬운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일을 거부했으며 과거에 저지른 참혹한 죄과를 선부른 망각으로 인해 묻어버리는 일을 경계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김정아는 “제주도의 토박이 무당인 변심방과 추심방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도민들의 넋을 씻기는 일을 끝끝내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들의 이웃이고 살붙이었던 죽은 자들이 여전히 제주도 땅에 무주고혼으로라도 거처하도록 두어 두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굿을 거부하는 제주도민들의 태도를 가리켜 “위안이나 구원보다는 지배당하지 않기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본 그의 해석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망각이라는 손쉬운 해결이 아닌 애도 불가능성이라는 종결의 결핍 상태에 텍스트가 놓여있음을 온당하게 포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 -탈근대적 민중공동체 복원을 향한 근원 사유」, 『현대문학이론연구』 5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45-46쪽) 고명철 역시 제주의 역사적 상처가 제주 심방들에 의한 제주식 굿이 아니라 “육지부 씻김굿”에 의해 씻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신화를 삼킨 섬』은 4·3의 당사자인 제주인으로 하여금 ‘4·3의 성찰’이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고명철은 주석에서 “필자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주 심방에 의한 굿으로 작품의 결미가 이루어졌으면 하였다. 하지만 작가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된바, 제주의 4·3을 에워싼 이념적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는 한 제주의 신명난 상생굿을 만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을 터이다.”라고 고백한다.(고명철 화마(火魔)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오늘의 문예비평』, 2005, 34쪽.) 제주가 겪은 역사적 아픔에 대한 애도가 제주 심방에 의해 제주도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불가능성을 지적한 그의 통찰은 소설 속에서 애도가 외부 심방의 손을 빌려, 타지역의 애도 의식을 빌려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이는 (불)가능한 용서와 화해는 외부에서 더해져 내부의 결핍을 드러내는 대리보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는 “이청준의 소설은 용서를 이야기하기 위해 용서의 불가능성에 대해 폭로한다”는 역설 위에서 “이청준의 소설에서 선물, 용서, 애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글쓰기의 텍스트성 자체를 다루는 일종의 메타-글쓰기적 실천”(이소연, 『분열과 조율의 변증법: 이청준 소설의 자기형성적 텍스트성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12-215쪽)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고 있다.

전결로 이루어진 서사 체계에 온전히 포착되기 거부하는 실재계(the Real) 또는 아포리아(aporia)의 영역에 놓여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본고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화를 삼킨 섬』에 제시되어 있는 해결 불가능한 갈등 요소들을 해체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이러한 충돌하는 요소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질서 잡힌 서사 체계 안에 통합하는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화적 리얼리즘’의 글쓰기가 어떻게 미학적인 승화에 이르게 되는지, 기본적인 원리와 체제를 상세하게 규명할 것이다.

2. 갈등(agon)의 협상과 종결의 부재

『신화를 삼킨 섬』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등장한다. 갈등은 거의 모든 서사에 들어있으면서 서사에 실제적인 힘을 부여하는 요인이다.⁸⁾ 『신화를 삼킨 섬』의 서사 구조는 서로 대립되는 힘 또는 관념들로 이루어진 갈등의 층위들이 촘촘히 얽혀 있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 소설에서 독자는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이항대립적인 쌍들을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다.⁹⁾ 이러한 이항 대립적 요소들은 소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8) 고대 그리스에서 갈등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곤’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서사는 갈등을 통해 중대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H. 포터 애벗은 “문화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혹은 적어도 그 문화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갈등을 재현함으로써, 서사는 그와 같은 갈등을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한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애벗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해 보기로 한다. “서사의 갈등은 단순히 특정 인물(또는 실체)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서사적 실체들이 겪는 갈등이 절정에 이를 때 우리는 가치, 관념, 감정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갈등들까지도 함께 발견하게 된다.(...) 서사는 대립하는 견해들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문학과지성사, 2010, 114쪽.

원인이 되지만 사건들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이들을 구별 짓는 차이가 해소되어 간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서사는 스토리의 중심을 이루는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종결(closure)을 만들어간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롤랑 바르트는 『S/Z』에서 서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기본 코드를 설정한 바 있다.¹⁰⁾ 애벗은 이 가운데 기대와 행위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행동적 코드’와 질문과 답변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해석적 코드’를 선정한다. 그는 이 두 코드가 서사를 해독하는 필수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서사에서 종결이 발생하는 두 가지 층위를 추출해낸다. 이들이 바로 ‘기대의 층위’와 ‘질문의 층위’이다.¹¹⁾ 기대 층위에서 독자는 자신이 이미 읽은 행위나 사건들이 전체적인 코드를 통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서사가 자신의 기대에 따라 특정한 종결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층위에서 독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질문 층위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다. 롤랑 바르트와 그에 기반을 둔 애벗의 이론을 인용한 이유는 『신화를 삼킨 섬』에 제시된 갈등들이 과연 해소된 것인지, 이러한 갈등의 해결이 소설을 성공적으로 종결로 이끄는지 여부를 판명하려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신화를 삼킨 섬』은 기대 층위에서는 종결에 도달했으나 질문 층위에서는 종결에 이르지 못한 서사, 즉 종결의 부재를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주요한 갈등의 축을 이루는 죽은 자/산 자, 육지(물)/제주

9)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물:섬, 국가(官):개인(民), 신화:현실, 정요선:추만우, 변금옥:숙명(제주 심방의 삶), 산 자:망자, 이승(삶):저승(죽음), 애도:우울증, 청죽화:한얼회, 좌파: 우파, (원)한:용서, 외지인:내지인 등.

10) Roland Barthes, *S/Z*, trans.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4, pp.18-20.

11) H. 포터 애벗, 118-131쪽을 참조할 것.

(섬), 국가(관)/개인(민중), 애도/우울증¹²⁾ 사이의 대립은 소설의 중반까지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낳는 원인이 된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시작된 계기인 제주도의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벌이는 ‘역사 씻기기’ 사업은 중간에 여러 방해와 난관이 끼어들면서 계속 지연을 거듭한다. 이 가운데서 기존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이에 더해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추가되면서 소설은 서스펜스를 일으킨다. 소설 후반으로 가면서 갈등이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만족되지 않고 불확실성만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단번에 해결하고 지연되어 온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는 바로 유정남이 위령제에서 벌인 씻김굿이다. 독자는 육지 무당인 유정남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언젠가 그들이 주도하는 굿이 치러질 것이며 그 굿판이 소설의 전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지연되었던 굿이 마침내 치러지는 순간 독자의 기대는 충족된다. 굿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주 격인 김상노 노인이 긴 침묵을 깨고 통곡을 터뜨리는 순간 소설은 모든 이항 대립이 해체되고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알린다. 이 굿판은 굿에 참여한 무당들과 일반 관객들은 물론 위령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견제하던 관(官) 측의 대표자인 이 과장, 과학적 이성의 소지자인 양 교수, 그 가운데 특히 제 3자의 지위를 굳건히 견지하던 재일교포 연구자 고종민까지 흥겨운 춤판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기대 층위에서 종결이 완수되었다는 심증이 굳어지게 한다.

그러나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사학적 효과와는 별개로 질문 층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 주목

12) 여기서 우울증이란 애도가 실패한 상태, 즉 대상의 상실에 따른 리비도의 철회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증」이란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다. 이는 애도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대립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7, 243-265쪽.

해야 한다. 『신화를 삼킨 섬』 후반부에서 전경화되는 갈등은 위령곳을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관(官)과 외지에서 온 무당들을 경계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던 제주도민들에 대립되는 위치에 있던 유정남 일행 사이의 대립이다.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치러낸 위령곳의 성공적 수행은 이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사실 표면적인 것일 뿐 오히려 이는 더 큰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유정남의 위령곳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애도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으며 해결된 듯 보였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로 대표되는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과 폭력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성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한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들이다. 소설에서 억압 받는 민중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변 심방 집의 딸 변금옥의 운명이다.

금옥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개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개인을 억압하는 폭력 앞에서 사실 가장 무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녀는 평생 뱀신을 모시는 무당 노릇을 하면서 제주 섬 안에 갇혀 살아야 할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란 외지에서 온 남성을 만나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는 유정남의 아들 정요선에게 접근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내림을 받고 제주도에서 평생 무당으로서 살아야 할 운명에 갇힌다. 소설은 연민과 연심을 품게 되는 정요선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금옥과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에 시종일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요선의 시선 속에서 금옥은 한 개인의 범위를 넘어 제주도 사람 전체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설에 내내 긴장을 부여하던 주요한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라는 데에서 독자는 커다란 간극을 느낄 수밖에

에 없다. 금옥의 운명을 못내 안타깝게 여기는 정요선의 심경은 소설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묘사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을 소설 초반, 중반, 후반에 걸쳐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그 당집 계집아이가 그렇듯 섬을 무작정 나가고 싶어 한 것도 이 섬이 제 일생을 그 껌껌한 뱀무당집 딸 팔자 속에 가두어버릴 게 두려워져서였던 건가……

요선은 문득 그 해정리 변 신당 집 계집아이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 그 비좁고 음습한 느낌 속에 요선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섬 사람들에게 까지 생각이 미쳐갔다.** 더러는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꼭꼭 닫힌 섬에 갇혀 살다 남다른 한을 남기고 간 죽음도 많았으리라는 생각에 지레 진저리가 쳐지기까지 했다.(35-36쪽,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위인의 계속된 지껄임 속에 그는 언제부턴지 다시 금옥을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섬사람들의 고난스런 숙명? 그 숙명의 굴레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은 섬사람들의 역사?** 고종민의 그런 소리들이 그에게 다름 아닌 금옥의 팔자와 발버둥질을 떠올리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듯 섬을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대는 금옥의 모습이 녹슬어 무딘 칼날 처럼 그의 가슴을 무겁게 저며들기 시작한 것이었다.(158쪽, 강조는 인용자)

하지만 요선은 지금 그 금옥의 모습이 곱다거나 성스럽기보다 어딘지 안쓰럽고 애잔스럽기만 하였다. 그리고 누구에겐지 알 수 없는 착잡한 원망기 속에 제풀에 막막한 한숨이 터져 나오곤 하였다.(...) **도대체 어떤 힘이 저들에게 그렇듯 험난한 운명의 길을 접지했단 말인가 그 신어미의 축원 공수가 진정으로 저 여인의 외롭고 고난투성이 앞길이 어떻게 누구를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요선 자신 아직도 그것을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이날 금옥의 일을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379-380쪽, 강조는 인용자)

금옥의 경우 뿐 아니라 유정남은 자신의 여행길이 제주도에서 머물지

않고 K골(광주)와 녹동(소록도)로 이어질 것임을 요선에게 예고한다. 아마도 유정남은 무당의 직감으로 제주 4·3사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사건이 광주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한 것이겠지만 독자에게 이러한 결말은 소설 속에 제시된 근원적인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리라는 두려운 예감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¹³⁾ 이러한 느낌은 『신화를 삼킨 섬』의 첫 장과 마지막장에 실려 있는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더욱 증폭된다. 일종의 액자서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는 힘없는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개인 간의 비정한 투쟁이 집단 무의식이란 심층적 차원에 위치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독자는 소설 내에서 재현되는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것임을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동시에 알아차리게 된다. 따라서 『신화를 삼킨 섬』은 질문 층위에서의 종결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이러한 종결의 부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이아말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속시키는 본질적인 원동력임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3. ‘대리보충’으로서의 곳과 글쓰기

『신화를 삼킨 섬』의 위령굿 장면은 신화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무대로서, 용서와 해원의 사건에 대한 재현으로서, 그리고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¹⁴⁾ 굿판은 대

13) 소설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K골과 ‘지팡이 사내’가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 대상이 오월 광주의 사건과 김대중임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소설의 열린 결말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역사를 상기시키는 알레고리로 작용한다.

14) 한순미는 굿의 서사와 소설전체 간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립하는 세력들이 부딪히는 갈등의 장인 동시에 이들을 분리하던 경계선이 흐트러지면서 한데 뒤섞이는 융합의 공간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를 규제하는 이항대립들이 허물어지는 특이 지점으로서의 곳판은 ‘전체(whole)’에 난 ‘구멍(hole)’, 즉 기존의 질서에 포착되지 않는 틈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멍은 상징계에 균열을 낼뿐만 아니라 그 틈을 통해 전체 체계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셋김굿은 질문 층위 종결, 즉 애도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산 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판타지임을 폭로함으로써 애도의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기존의 체계에 대한 보충이자 체계에 결핍이 있음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대상을 가리켜 ‘대리보충(supplement)’이라고 명명한다.¹⁵⁾ 데리다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대리보충’은 유사한 단어인 ‘complement’와 달리 단순히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덧붙여져 세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잉여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덧붙여진 대리보충은 ‘대립으로 사유할 수 없는 틈’을 발생시키기 위해 기존의 체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등장하는 무당의 셋김굿이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대리보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굿이 상실과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발생시키는 한편, 치유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만들어내

한다. “소설전체는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역사적인 기억의 형성, 치유와 해원의 방식,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점층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이어서, 서사의 흐름은 매듭-셋김-풀이의 굿마당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37쪽.

15) 데리다는 이 책의 한 챕터에 “...저 위험한 대리보충...(That Dangerous Supplement...)”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데리다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대리보충’은 유사한 단어인 ‘complement’와 달리 단순히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덧붙여져 세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잉여물을 가리킨다.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141.

기 때문이다. 굿은 공고하게 자리 잡힌 이분법적 대립을 허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에 용서할 수 없는 죄과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해소할 수 없는 원한과 갈등이 생겨났으며 이 굿은 그러한 결함을 대리로 충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라는, 행위 자체에 관한 수행적 진실을 상징계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굿은 자기반성적(self-reflexive), 자기 참조적(self-referential) 성격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굿은 애도와 용서를 이중적인 것으로서 형상화한다. 소설 속에서 굿은 단순한 애도 또는 일차원적 용서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애도에 대한 애도, 즉 애도의 불가능성에 대한 애도로서 기능한다. 이것이 바로 굿이 지닌 애도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즉 굿은 애도의 불가능성을 유지한 채로 애도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의미 부여가 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 굿은 기억과 망각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일성의 경제(the economy of the same)” 내에 위치한다.¹⁶⁾

굿판을 진행하는 무당 일행이 내지인이 아닌 외부인으로 설정됨으로써 대리보충으로서의 굿의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¹⁷⁾ 이러한 굿은 소설에서 상실에서 시작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소설의 줄거리를 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극중극(theatre-in theatre)’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굿은 소설을 쓰는 작가의 글쓰기 (행위)에 대한 알레고리 역

16) 여기서 경제(economy)란 동일성과 차이가 같은 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데리다는 『글쓰기와 차이』에서 ‘차연’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바로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Différance within the economy of the same.”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8, p.198.)

17)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대리 표현하고 이미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그제 앞서 존재하는 현전의 결함 때문이다. 그 어딘가, 그 무엇인가는 자신으로는 채울 수 없으며, 기호와 대리로 메울 때만 완수될 수 있다.”는 데리다의 말은 소설 속에서 굿이 담당하는 역할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p.145.

할을 하기도 한다. 소설 속에 묘사된 곳처럼 이청준은 자신의 소설 쓰기가 일종의 씻김 즉 애도 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소설 전체를 통해 꾸준히 상기되고 있다. 곳과 마찬가지로 『신화를 삼킨 섬』이란 소설 쓰기는 우리의 현실 위에 덧붙여져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끔찍한 학살과 압제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애도 작업의 일환으로 써의 소설 쓰기는 정체 모를 아픔으로만 지각되던 상처에 형체를 입히고 사회 안에서 적절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상실을 상실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리보충이 없다면 아픔은 구체적인 실체와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재현불가능한 트라우마 상태로 잔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곳은 우리에게 치유의 부재와 존재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주는 임무를 지니며, 마찬가지로 소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탐색해 여기에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지닌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상실을 상징계 안에 위치 짓는 역할을 한다. 명명할 수 없는 상처가 일단 글쓰기를 통해 서사화되고 나면 우리에게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¹⁸⁾ 데리다는 대리보충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리보충에는 단지 부재하는 현전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호라는 대리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부재하는 현전을 대리시키면서, 대리 보충은 부재하는 현전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취하고 그것을 제어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전은 욕망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리보충은 금기된 것을 위반하는 동시에 존중한다.

18) 대리보충으로서의 곳과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너선 리어의 설명을 보충할 수 있다. 그는 프로이트의 논문 「쾌락원칙을 넘어서 에 등장하는 중요한 테마인 ‘포트-다(fort-da)’게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게임이 성립되고 난 후에야 아이는 상실 또는 부재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 단지 게임이 정초되었을 때에야 그에게 상실은 상실이 된다. 게임의 결과는 명명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상실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아이는 “엄마-그리고-아이”라는, 불확실하게 구분되는 장에 있었다. 이러한 장은 어머니의 부재에 의해 교란된다.” Jonathan Lear, *Happiness, Death, and the Remainder of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92.

(...) 그 경계는 힘과 동시에 힘의 차이 놀이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동시에 보호한다.”¹⁹⁾

이청준의 소설에서 글쓰기는 용서와 해원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판타지임을 일깨워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역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청준이 말한 ‘씻김’으로서의 ‘소설질’이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상처에 형태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에 일어났던 비참한 사건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형체 없는 상처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의 중요성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격인 정요선의 자기 정체성 찾기 테마와 연결됨으로써 더욱 확연하게 강조된다. 요선은 일행과 함께 굿을 마치고 제주도를 떠날 때 어머니인 유정남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줄곧 그의 속을 부엌에 떠돌고 있던 그 뿌리를 알 수 없던 막연한 불안감과 의혹의 안개가 걷히고 그의 가슴속 어디로부터 서서히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387쪽)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유정남의 친아들이 아니라 소록도에서 죽은, 정(丁) 씨 성 지닌 남자의 아들임을 알게 되면서 부모 대에서 물려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상처의 원인을 알게 되고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존재를 상기하는 순간 요선은 부모를 포함한 자신의 과거를 애도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장면에서 애도는 자기정체성 회복의 모티프와 연결된다. 이 두 모티프는 모두 궁극적인 ‘해결 불가능성’과 ‘치유불가능한 상처’의 존재를 깨닫고 이러한 불가능성을 구체적인 표상을 통해 형상화시키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바로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결핍을 보충하는 대리보충의 원리다. 이청준은 글쓰기가 지닌 대리보충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종종 이를 작품의 주제로 직접 다루기도 했다²⁰⁾ 따라서 이청준 소설에

19)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p.155.

서 용서, 해원, 애도와 같은 주제는 질문 층위의 답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열린 종결, 해체와 대리보충의 연쇄 가운데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이청준이 용서와 화해의 미덕을 소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설교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청준은 소설의 자기반성적 특징과 해체가능성을 투명하게 의식해온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글쓰기가 지닌 대리보충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종종 이를 작품의 주제로 직접 다루기도 했다²¹⁾ 따라서 이청준 소설에서 용서, 해원, 애도와 같은 주제는 질문 층위의 답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열린 종결, 해체와 대리보충의 연쇄 가운데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며 텍스트에 직접 제시된 철학적인 담론을 마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고정불변의 메시지처럼 다루는 것은 오독에 가깝다.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청준 소설 특유의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서술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상반되는 다른 담론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열린 틈임이 드러난다.

4. 용서와 해원(解冤)의 (불)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화를 삼킨 섬』은 서로 경합하는 두 개의 이야기의 쌍들로 치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서사다. 그 가운데서도 용서와 해원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질문층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은 이 둘 대립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한편을 선택하지 못한 채 질문층위에서 종결이 부재하는 열린 서사로서 마무리된다. 중요한 것은 질문층위에서 종결이

20) ‘언어 사회학 서설’ 연작이 바로 이러한 글쓰기의 해체적 특징을 주제에 전경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1) ‘언어 사회학 서설’ 연작이 바로 이러한 글쓰기의 해체적 특징을 주제에 전경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사는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서사를 끝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신화를 삼킨 섬』은 심층적으로는 질문층위의 종결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야기의 표층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서사다.

이러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는 『신화를 삼킨 섬』에서 용서와 해원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상반된 내용들이 어떻게 갈등 과정을 거쳐 협상에 이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소설은 과거 대량학살이 일어난 제주도에서 국가 즉 관청이 주도하는 애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육지에서 활동하는 무당들이 파견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기대층위에서 이들 무당들이 계획했던 대로 애도 작업 즉 큰 규모의 굿판을 완수함으로써 종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의 기대는 지역 관리들의 무관심과 무책임, 제주도민들의 의심과 비협조, 토착 무당들의 방해 등으로 계속 지연된다. 소설은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을 계속 연기함으로써 소설에 다양한 종류의 서스펜스와 긴장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소설의 시작과 끝 사이를 채우고 있는 중간부분을 의미 있는 지속(pleroma)²²⁾으로 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대를 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소설은 후반부를 대부분 온갖 난관을 뚫고 주인공 측인 유정남 일행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굿을 완수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데 할애하고 있다.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엇갈림으로 인해 공전되던 위령굿을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소설은 극적인 반전을 준비한다. 소설 전체를 관통해온 크고 작은 갈등들을 일거에 해소해주리라 기대되는 장면의 실현을 위해 작가는 운명의 장난인지 역사의 필연인지 알 수 없는 이중

22) 프랭크 커모드는 서사의 플롯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과거 및 중간의 시점과 연결됨으로써 의미로 충전되는 상태를 가리켜 '플레로마'라고 지칭한 바있다. 프랭크 커모드,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허구이론의 연구』, 조초희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3, 64쪽.

의 아이러니를 개입시킨다. 아이러니의 첫 단계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역사 씻기기’ 사업을 주도하던 신군부 정권이 도리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데서 온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제주도에 안정을 가져올 위령굿을 중단시켜 정국에 혼란을 부추기고 이를 전국적인 계엄령 선포의 빌미로 삼으려 했던 정권의 의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데 있다. ‘역사 씻기기’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려고 하는 정부 측의 압박이 오히려 유정남 일행의 위령굿 행사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아이러니는 한층 절묘하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갈등의 협상은 인간의 의도와 역사의 간지(奸智)가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지는 정교한 과정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²³⁾

소설은 마지막 굿판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전체 서사 속에서 굿판이 차지하는 위치와 극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유정남 일행은 경황없이 꾸러진 굿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온갖 기예와 정성을 동원하여 굿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굿판에 참여한 사람, 특히 초점자(focalizer)인 고종민의 시선과 목소리에 상당히 이입되어 있는 서술자는 굿이 원한을 풀고 애도를 수행하는 과정임을 거듭 증언하고 있다.

무녀는 망자의 원통한 죽음이나 포한뿐 아니라 모든 죽음의 허망스러

23) 이러한 이중·삼중의 아이러니는 작중인물에게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주도에서 ‘역사 씻기기’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인 도청의 이 과장이 겪는 혼란이다. 소설은 대립하고 있던 갈등의 주체가 뒤바뀌고 경계가 해체·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과장은 그러저래 머릿속이 심하게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새삼 정체가 아리송해진 그 문서 수발 담당 사내 앞에 여전히 주재관의 대리 서명을 강요받다시피 하고 있는 자신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310쪽)

움과 부정함,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 삶의 허망스러움과 부정을 함께 씻기고 있었다. 종민이 그 무녀의 정성스런 굿거리에서 자신도 새삼 어떤 그윽한 안도감과 정화감을 느낀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가 싶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무녀는 죽은 망자나 그 일족뿐만 아니라 이날의 굿청 사람들을 비롯해 이 섬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함께 씻기고 있는 셈이었다.(360-361쪽)

굿판의 절정이자 소설 전체에서도 분기점이 되는 장면은 굿의 기주역인 김상노 씨가 통곡을 터뜨리는 대목이다. 굿이 진행되는 내내 덩덤한 자세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은 굿에 참여한 죄중은 물론 독자에게 조바심과 실망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는 굿 의식이 끝난 후 급격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체되었던 긴장을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죽은 가족의 영혼을 향해 용서를 비는 그를 향해 유정남은 이미 망자들의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고 위로한다.

“할무니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이놈을 오늘 함께 데려가주거나 하십시오. 할무니이, 으허허허.....”

“허허 이 양반, 할머니님 혼령은 벌써 저승길을 떠나셨대도 이러네. 이승에서 풀어야 할 한 다 푸시고, 용서할 것도 다 용서하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님이나 숙부님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것은 이 손자 씨 마음속뿐이란 말여.”(370쪽)

이 대목에서 위령굿을 통해 혼을 ‘씻기는’ 애도의 행위는 망자의 원한을 위로하는 ‘해원’의 차원을 넘어서 산 자들의 죄의식을 사면해주는 보편적인 ‘용서’와 동일시된다.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무녀의 말은 마치 선언처럼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수행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 날의 사건은 무녀 일행은 물론 이 과장, 양 교수, 고종민 등 서로 다른 입장과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석양을 등지고 굿청 춤판에 흥겹게 어우러지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장면들은 그 간 날카롭게 대립되어 온 여러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마침내 기대 충족은 물론 질문 충족의 종결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설이 조화로운 화해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옥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채 섬에 영영 묶이는 신세가 되고, 육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능가하는 무참한 대량학살의 전조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비참한 사건의 현장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유정남 일행의 여정은 멈출 기색이 없다.

결국 소설에서 위령굿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은 질문 충족의 종결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²⁴⁾ 이 국면에서 『신화를 삼킨 섬』은 서사의 형식은 물론 내용 충위를 변증법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인 중층적인 텍스트성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감동적인 화합과 용서의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씻김굿’이라는 사건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판타지라는 의식을 주된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다. 아기장수 설화는 민중을 대표하는 한 영웅이 채 성장하지도 못한 채 부모와 국가 권력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처절한 의식을 표출해왔다. 또한 이 설화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신해 갈등을 해결해줄 새로운 구원자가 도

24) 홍용기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불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씻김 혹은 해원의 과정을 통해, 섬이 갖고 있는 한은 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무수한 고통과 고난을 생명의 근원으로 씻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씻김의 과정은 완전한 해소 혹은 해결의 과정이 아니다. 이들이 해소하는 것은 섬이 지니는 자생적 한계의 일부일 뿐이거나, 혹은 그것의 형식적 행위로 치부해야 한다.” 홍용기, 「사유와 실천의 윤리학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373쪽.

래하는 ‘이야기’ 즉 자신들의 ‘꿈과 기다림’을 투사할 판타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²⁵⁾ 이러한 판타지의 내용은 주로 ‘상실된 것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현실의 갈등을 상상적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해왔다. 곳 또한 이러한 상실과 회복에 관련된 서사를 축약해서 무대화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극화한 신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곳판은 상상적 해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산 자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곳을 통해 투사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치유불가능한 상실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청준은 『신화를 삼킨 섬』을 통해 용서와 해원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개념인 애도를 해체하고 있으며²⁶⁾ 동시에 질문 층위의 종결을 해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나가며

서사는 현실 속에 잠재하는 여러 갈등 요소들을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이들을 잠정적으로나마 화해시킴으로써 수사학적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에 만족감, 서스펜스에 안도감, 혼란에 명확함을²⁷⁾ 가져다주는 종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종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사는 ‘갈등의 해소와 종결’이라는 판타지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청준의 소설은 이러한 갈등들이 서로 교섭

25)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 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389-390쪽)

26) 이는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가리키기에 ‘애도 (불)가능성’, ‘용서와 해원의 (불)가능성’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27) 앞의 책, 130쪽.

하는 가운데 후반으로 갈수록 모종의 협상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소설 후반으로 가면서 갈등이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만족되지 않고 불확실성만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롤랑 바르트와 H. 포터 애벗의 서사 문법에 따르면 『신화를 삼킨 섬』은 기대 층위에서는 종결에 도달했으나 질문 층위에서는 종결에 이르지 못한 서사, 즉 종결의 부재를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설은 소설을 통해 제시된 갈등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것임을 알려준다. 이는 종결의 부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야말로 삶과 역사를 지속시키는 본질적인 원동력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청준은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 ‘씻김’을 자신의 ‘소설질’에 비유하곤 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소설 자체가 애도 작업의 소산임을 밝힌다.²⁸⁾ 그에게 있어 소설 쓰기는 재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형태와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상실’로서 명명하는 과정임을 뜻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상실의 재현은 상실의 재현불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역설을 경유해야만 한다.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텍스트로 재현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은 이청준에게 있어 창작론적 층위를 넘어서는, 실존적인 차원의 문제였음이 틀림없다. 이청준은 자신의 창작과정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작중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빚어나간다. 이들의

28) 작가의 마지막 소설집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열림원, 2007)에는 ‘에세이 소설’이라는 이름 아래 네 편의 에세이가 묶여 있다. 그 가운데 한편인 「귀향지 없는 향로」에서 이청준은 사십여 년 동안 매진했던 자신의 문학 세계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축약한다. “내가 이 소설질로 무엇을 해왔나?” 이에 대해 그가 스스로 내린 답변을 그대로 옮겨본다. “근자에 떠오른 일이지만, 그것들은 한마디로 우리 삶의 씻김질에 다름 아니었다. (...) 그야 이후 나는 저 50년대 전란기의 민족적 상흔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고힌을 한마당 위령굿과 씻김굿판으로 위무해보려기도 했으니까./그래온 내가 아직도 제 소설질 길에선 헤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그것은 아직도 자신을 씻기지 못했음일 것이다.”(274, 278-279쪽)

삶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통과해온 과거의 역사와 현 상황을 살피면서 정체성을 점차 찾아가는 인간의 드라마를 보게 된다. 그것은 정요선과 고종민에게는 자기 찾기의 과정이며 제주 사람들과 심방들에게는 비참한 역사에 대한 애도일 것이다. 이는 소설 속에서는 한 바탕 씻김굿으로 형상화되며 나아가서는 작가의 ‘글쓰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신화를 삼킨 섬』을 통해 작가는 이러한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들(무당들, 고종민 등의 작중인물들)의 노력과 실패를 그려냄으로써 자신 또한 대리보충의 연쇄 고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청준에게 있어 이러한 작업은 『신화를 삼킨 섬』 한편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다. 이청준의 소설은 거의 대부분 표층과 심층에 걸쳐 다양한 층위를 이루는 서사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 교차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소설이 텍스트성(textuality)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끔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소설 쓰기 역시 현실에 더해져서 용서와 애도의 불가능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현실의 결핍을 드러내는 대리보충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이들의 아픔을 증언하는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소설은 결함투성이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를 직접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를 재현하기 위해 벌이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 증언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전망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_____, 『서편제』, 열림원, 2001.
_____,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2007.

2. 논문

-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 -탈근대적 민중공동체 복원을 향한 근원 사유」, 『현대문학이론연구』 5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 - 최인훈,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오생근, 「이청준의 마지막 소설들과 신화」, 『본질과 현상』, 본질과현상사, 2011년 가을호.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 : <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이경옥, 「문학텍스트에 대한 문학인류학적 해석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론」, 『비평문학』 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이미란, 「용서와 화해, 잊기의 윤리학 : 이청준의 창작론 연구(2)」, 『현대소설연구』 5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이소연, 『분열과 조율의 변증법: 이청준 소설의 자기형성적 텍스트성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 이청준의 『신화

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홍웅기, 「사유와 실천의 윤리학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3. 단행본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7.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문학과학지성사, 2010.

프랭크 커모드,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허구이론의 연구』, 조초희 옮김, 문학과학지성사, 1993.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8.

Jonathan Lear, *Happiness, Death, and the Remainder of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Roland Barthes, *S/Z*, trans.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4.

<Abstract>

A Study on the Negotiation of Narratives in Yi Chung-jun' *Island Embracing Mythology*

Yi, Soh-Yon

Island Embracing Mythology is the novel written by Yi Chung-jun in his later years. Yi Chung-jun employed many myths and folktales in order to represent Jeju 4·3 incident(April third resistance) too tragic to be represented thoroughly with language. He tried to embody the complicated present which cannot be presented with one-dimensional language using the structure of mythology as the horizon of consciousness. In *Island Embracing Mythology* various events dynamically interplays while coming into conflicting and running into one another. These agons and conflicts are inclined to negotiate with one another within this novel's plot.

The representative one among varied agons and conflicts in *Island Embracing Mythology* is the question of the possibility of forgiveness and resolution. Readers of this novel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this novel doesn't have the satisfactory answer about this question. *Island Embracing Mythology* is the narrative which can arrive at the closure in the level of expectation but cannot in the level of question. The last chapter of this novel ends with the scene implying that agons and conflicts appeared in the text have never been resolved eventually and mourning will be delayed eternally. Through this process, the novel becomes the sign itself embodying the human lives

while putting them against the present in the way towards the open closure as if reflecting their images onto mirrors in *mis-en-abyme*.

The reading of *Island Embracing Mythology* exceeds the horizon of the apparent theme of forgiveness and healing of the trauma of 4·3 incident and reaches the stage in which we can inscribe the tragic reality of people and local community into the midst of our memory. In that sense, the *gut*(a kind of exorcism for mourning) has the important meaning as the stage contracting the narratives of myths, the representation of the events of forgiveness and resolution and the allegory of the author's writing. Both the *gut* and the author's writing are the supplementary act revealing the lack of the present while testifying the impossibility of the forgiveness and the mourning added to the present.

Key Words : mythological realism, agon, closure, trauma, forgiveness, resolution, mourning, exorcism(Gut), negotiation, writing, supplement, deconstruction

■ 논문접수 : 2016년 10월 17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КСІ